

여야, 연금 소득대체율 44%·자동조정장치 ‘줄다리기’

자동조정장치, 경제 상황 따라 보험료율 등 자동 조정 소득 보장성 악화 쟁점... 소득대체율 이견은 좁혀져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중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로,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소득 보장성 악화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소득대체율은 야당이 요구하는 44%까지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다만, 당내에서는 애초 정부가 소득대체율 42%를 제안한 점을 고려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44%까지 올려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여야 합의안 도출을 위해 44% 수용을 위한 당내 설득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굉장히 전향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줬기 때문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입장은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면서 법안에 어떻게 내용을 담을지를 협의하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에 “진전된 제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전면 수용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소득 보장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복지위원들이나 시민사회 등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도부로서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는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 장치’다. 그래서 민주당은 일관되게 여기에는 반대를 해왔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구조개혁 때 논의하면 되는 문제이며,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연제된 국회의 원구성과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넣어준다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발도 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실무협의를 위해) 하루나 이틀 정도를 더 달라고 했다”며 “여당 내부 의원들의 설득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가 불발될 경우 2월 임시국회 내 연금 개혁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소속 한 의원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담판을 내거나 국회의 승인 조건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가 돼서 합의될 순 있으나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육성 나와” 수사 촉구

진상조사단, 녹음 파일 재생... “김영선 전 의원에 공천 주려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증거가 된 육성 녹음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24일 언론사 시사인이 ‘김 여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실제 이날 회견장에서 시사인이 보도한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다”며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하잖아. 그

렇죠?”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명씨가 “당선인의 뜻이라며 윤상현을 압박한 것 같더라”라고 하자 김 여사는 “하어튼 너무 걱정 마세요. 잘될 거니까 지켜보시죠”라고 답했다.

이에 명씨는 “고맙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내일 같이 밥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 김 여사는 “네 선생님”이라고 말했다.

해당 녹음을 두고 조사단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조사단은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육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해줬다.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돼 있다”며 이번 공개된 육성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발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반발이 있음에도 윤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을 공천하려 하는 정황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취직식을 앞둔 당선인이 본인의 권력을 앞세워 공천을 밀어붙인 배경은 무엇인지, 윤석열에게 명태균과 김영선이 어떤 도움을 줬길래 국회의원의 자리로 보답을 받은 것인지 당사자에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야 5당, 이번주 ‘명태균 특검법’ 처리”

박찬대 원내대표 “검찰 은폐·축소 의심...국힘 선거 개입 진상 규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5일 “이번 주 야(野) 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특검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은폐·축소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커지는 가운데 명태균이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한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발로 뗏뗏하다면 특검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예정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파면이나 파멸이냐의 갈림길에 있다”며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며 국민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계속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고, 심지어 3월 1일 탄핵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정당은 더는 보수정당이 아니다. 심판받아야 할 극우 정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이동통신 장애 발생시 즉시 고지 의무화

조인철 의원,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서구갑) 국회의원이 25일 통신 장애 발생 시 기업이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국내 모 이동통신사는 12시간 동안 해외 특정 사이트(ChatGPT, LoL 등) 접속 장애를 일으켰지만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복구된 후야 뒤늦게 공지를 받았다. 해당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요금 환불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장애 사실을 빨리 알릴수록 환불 부담이 커져 능자 공지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현행법상 이동통신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는 시행령에 불과해 강제력이 약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를 제



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반면 미국과 EU는 강력한 법률 규제를 통해 장애 발생 시 즉각 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이동통신장애 사실 미고지 시 과태료를 최대 500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장애의 원인·복구 예상 시간·고객센터 연락처·손해배상 기준 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인철 의원은 “법적 미비로 인해 장시간 인터넷 장애가 발생했는데도, 이용자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장애 발생 즉시 안내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